

오늘의 기사판

대학생 평화캠프 '어서 와요! 평화와 통일'

오전 10시 30분 조선대 출발

역사속의 오늘

뉴스퀴즈

18일)
▲제 1회 대학생 평화캠프 '어서 와요! 평화와 통일' = 오전 10시 30분 조선대 출발. 21일까지 3박 4일 일정.
▲진도군 행정혁신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 오후 1시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연회장.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사업 투자협약 체결식 = 오후 4시 순천시청.
▲아로마 창업교육 개회식 = 오후 1시 광주시 남구 건강증진센터.
(19일)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주관 워크숍 = 오전 10시30분 무등파크호텔.
▲(재)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업무협약 조인식 = 오전 11시30분 과학기술원 대회의실
▲제 50회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4-H 자연사

랑·농촌사랑 실천대회 = 장흥 천관산 체육공원. 21일까지.
▲진도연안 선박 통항 관제 서비스센터(VTS-Vessel Traffic Service) 개국식 = 오후 2시 진도군 입회면 서당항.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 오후 2시 광주시 남구청 상황실.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 = 20~26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전' = 20일~8월 9일까지 나인갤러리
▲대지의 숨결전 = 20일~8월10일까지 자미갤러리.
▲삼·죽을 그리고 선물전 = 19일까지 지산갤러리. 방우송(예원예술대) 교수의 영상 설치작품전

시.
▲한국화 4인 4색전 = 19일까지 메트로 갤러리. 안용욱·하운수·정태선·박진수씨 등 한국화가 4명 작품 전시.
▲'三·色·展' = 18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김인자·정남산·조현동씨 등 한국화 3인전.
▲조선왕실의 가마전 = 30일까지 목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원국화 미술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생명전' = 31일까지 일곱 갤러리. 백담 무천 스님 작품 전시.
▲'그림속 동물 읽기'전 = 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용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해군 군악대 초청 연주회 = 18일(화) 오후 7시30분 광양시 야외공연장.

▲백제 678년만에 멸망(660)
▲신문고 설치(1401)
▲영국의 작가 오스틴 세상 떠남(1817)
▲미국 남북전쟁 일어난(1861)
▲평양역 기공(1929)
▲서울대학교 신설(1946)
▲동양화가 박생광 세상 떠남(1985)
▲태종 설마로 괴해로 사망 99명 실종 236명 재산피해 1천243억원(1987)
▲전경환 새마을비리사건 첫공판(1988)
▲전주 우석대, 12억 받고 86명 부정입학사건 사실 드러남(1988)
▲영화배우 강수연, 16회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아재야제 바라야제'로 여우 주연상 수상(1989)
▲윤보선 전 대통령 세상 떠남(1990)
▲박흥 서경대 총장, 주사과 발언 파문(1994)
▲검찰,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공소권 포기 발표(1995)

21. 31일간 65억 지구촌을 달궜던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가 지난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리 군단'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레블로 군단'을 꺾고 우승컵을 안았는데, 이번 우승으로 최다 우승(4회) 2위에 올랐으며, 유럽 대륙에서는 최다 우승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 이탈리아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브라질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강문선 <무안군 교육청>

"선생님! 언제 또 오세요?"
"음... 다음주 월요일에... 선규야, 책 읽는 거 재미있지?"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규는 6학년 남학생이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끝나면 중학생이 될 텐데 읽기가 잘 되지 않아 보충지도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한 읽기능력부진 학생들의 보충 지도를 위해 부진학생이 있는 8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무안군

기다리는 아이들을 향해...

교육청의 보충수업 지원 강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27명의 아이들 중 2·3학년이 절반 이상이다.
학교 선생님의 출장·공가·병가·특별휴가 때 보충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의 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공부시간은 또 다른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아이들 중 발표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이 죽어있는 아이들이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다.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 눈에는 두려움 섞인 호기심이 가득했다. 웃으면서 감싸 안겠다는 생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장난도 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책보다는 주고받는 마음이 먼저일 거라는 생각에서다.
아이들도 가슴을 활짝 열고 가까이 다가왔다.
2학년 병준이라는 아이는 장난기가 많고 조금 산만하다. 3월 초에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서울 이야기를 곧잘 하면서 눈물을 보인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서툰 글씨로 친구들 이름을 써서 보여주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이제는 조그만 얼굴에 안정까지 끼고

지금 열심히 문자를 익혀 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고학년인 선규가 읽기에 서툰 것은 자학할 때 공부를 소홀히 해서 라고 했다. 수학 여행 때 국어책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찡했다.
읽기가 잘되지 않아 재미있는 동화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긴 글과 어려운 내용에 싫증을 낸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짧은 글부터 읽기 시작했고, 긴 글은 짧게 끊었다. 다음 내용에 호기심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인데, 이제 복습과 예습이 스스로 이루어지면서 읽기에 능숙해져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7명 중 10명은 스스로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가까이하려는 아이들의 마음이 무척 대견스럽다.
농촌 아이들 중에는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많다. 보살핌이 부족하고 학습의 조력자가 가정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아이들 글 읽기 능력이 순간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도 학교로 달려갈 것이다.
아이들이! 기다려.

15회 광주시립미술대전
광주·전남 지역미술대전
이 바둑은 다른 판을 보다 초반부터 기세다툼이 치열했다. 기 5단이 정석을 도외시키고 부딪쳐 불붙기 시작한 전투가 전환을 휘감고 돌아 판세가 여러번 요동쳤다.
기 5단의 첫번째 실수는 우하귀에서 쉽게 52로 막고 만 것이다. 이 수로 65에 부딪혀 두텁게 수습했으면 알기쉬운 형세였다. 허 5단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63으로 끊어서부터는 흑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백 대마의 슬픔을 조인 독수처럼 보이면 109는 욕심이였

바둑소식
루이 9단, 3연패 뒤 첫승
대전 신성건설의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지난 16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바둑리그에서 대구 영남일보의 윤성현 9단을 298수 끝에 흑 4집 반승으로 따돌렸다.
루이 9단의 승리로 신성건설은 영남일보를 3-1로 꺾고 종합순위 3위로 도약했다. 루이 9단은 한국바둑리그에서 3연패 뒤 첫승을 거뒀다.
앞선 대국에서 영남일보의 이희성 6단은 신성건설의 김승준 9단을 제압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7라운드 1게임은 경기 한계임과 서울 제일화재의 대국으로 시작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23일 戊申)
子 36년생 마음은 편하지만 상황은 어려워 질수도 있다. 48년생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지만 해결은 비루어진다. 60년생 다가올 일을 먼저 예상하라. 72년생 잡자기 일이 이루어진다. 84년생 화려한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21, 25
丑 37년생 이웃의 좋은 소식이 들린다. 49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61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라. 73년생 병은 작을 때 고쳐야 좋으리라. 85년생 변화보다는 집중을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5, 26
寅 38년생 현실을 떠나 마음껏 상상해보라. 50년생 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구슬수는 항상 상존하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74년생 돈은 구하니 쓸 구멍이 곧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08, 37
卯 39년생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식은 온다. 51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63년생 경 경 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금상첨화다. 75년생 시기상조이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7, 29
辰 40년생 불연이던 일인도 생각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여야 좋으리라. 52년생 산 넘어 산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오히려 득이 되리라. 64년생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부려야 할 것이다. 76년생 구슬 수가 있을 수도. 행운의 숫자: 07, 40
巳 41년생 자신은 편하지만 이웃은 괴롭다. 53년생 부부의 정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생긴다. 65년생 부부사이의 불화는 서로의 탓으로 생각 하고 화해하라. 77년생 가족간의 어려움이 생기니 큰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09, 36
午 42년생 자신의 명예보다는 부하의 앞날을 생각하라. 54년생 상사로 인해 고통이 생길 수 있으니 상하를 살피라. 66년생 옛 정은 소중한 것이니 성숙한 우정을 쌓으라. 78년생 갑작스런 소비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14, 38
未 43년생 운이 좋아진다고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날을 점검하라. 55년생 안과계통의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좋으리라. 67년생 상대방의 인격도 나의 자존심만큼 지켜주라. 79년생 실재를 안 하려거든 서두르지 마라. 행운의 숫자: 12, 30
申 44년생 금의야행 노력의 빛이 나지 않는다. 56년생 슬기롭게 대처하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68년생 가슴이 답답한 일은 생기니 주변의 도움이 있다. 80년생 음모나 고자질하는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마음을 굳게 세라. 행운의 숫자: 03, 45
酉 45년생 어려운 일은 이미 발생하였다. 57년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때이다. 69년생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라. 81년생 사면조각과 생각되면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행운의 숫자: 11, 34
戌 46년생 늦게까지 일을 하나 헛일이다. 58년생 부지런히 달려도 걸음이 멀다. 70년생 부부사이의 오해는 집안에서 처가 만든다. 82년생 생 시비가 생길 일은 아예 결에도 가지 않는 것이 신중하다. 행운의 숫자: 01, 35
亥 47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9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응서의 자비를 쓰라. 71년생 마음을 굳게 세라 시비가 격정된다. 83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할일이 많다. 행운의 숫자: 06, 28

굿모닝 잉글리쉬 <691>
I'd hate to be you
나는 정말 싫다, 너 같이 되는 것 말아
A: Phew! It's been tough!
B: What happened?
A: My boss stormed at me, and I had a hard time getting away.
B: I'd hate to be you.
A: 휴유, 정말 진땀뻘다.
B: 무슨 일이었는데요?
A: 우리 사장님께서 날 엄청 호통치셨어.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오느라 고생했어.
B: 나는 정말 싫다, 너 같이 되는 것 말아.
It's been tough! = It's been rough!
: 정말 지독했어, 정말 심했어.
storm at (a person) : ~에게 호통치다
get away : 벗어나다, 빠져 나오다
I'd hate to be you. = I'd hate to be in your position.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91>
また落(お)ちちゃった
또 떨어져 버렸어
A: 運轉免許(うんでんめんきょ)の試験に、また落(お)ちちゃった。今度は大丈夫(だいじょうぶ)だと思ったのに。
B: なんだ、そんな事が。つまり日本語能力試験の事だと思った。一年に一回しかないから。
A: 自信(じしん)なくしちゃうなあ。3回も落ちちゃうと。
B: そう自信なくすなよ。まだ3回じゃないか。10回も20回も挑戦(ちょうせん)して落ちてるんだから。
A: 운전면허 시험에 또 떨어져 버렸어. 이번에는 관행을 거라 생각했는데.
B: 뭐! 그런 이야기? 틀림없이 일본어능력시험 건이라고 생각했어. 일년에 한번밖에 없으니까?
A: 자신이 없어지는구나. 3번이나 떨어져 버리면...
B: 그렇게 자신 잃지마. 아직 3번이잖아. 10번이나 20번이나 도전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運轉免許(うんでんめんきょ) : 운전면허
つまり : 틀림없이, 분명히
また : 또, 또한 落(お)ちる : 떨어지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409>
你们这儿有什么果汁?
여기 어떤 주스가 있나요?
A: 你们这儿有什么果汁?
Nihe nàr de yǒu shénme guǒzhī?
이런 것 뭐 있냐고 물어봐요.
B: 你们这儿有橙汁、苹果汁和柠檬汁。
Nihe nàr de yǒu chéngzhī, píngguǒzhī hé língméngzhī?
여기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레몬 주스가 있습니다.
A: 苹果汁好喝吗?
Píngguǒzhī hǎo hē ma?
사과 주스 맛있어요?
B: 是的。
Shì de.
네.
A: 哪儿买的?
Nǎr mǎi de?
어디서 샀어요?
B: 超市买的。
Chāoshì mǎi de.
마트에서 샀어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09>
滑走(활주)
미끄러울 활, 달릴 주
활(滑)은 수(水)+골(骨):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로, 물기가 있어 부드럽고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모습이다. 주(走)는 사람의 모습(大)과 발(足)로, 사람이 '대'의 모습처럼 팔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달리는 모습이다.
활주(滑走)는 미끄러지며 앞으로 달리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 따위가 이륙(離陸)하거나 착륙(着陸)할 때, 땅이나 물위를 미끄러져 달리는 것을 지칭한다. 그 길을 활주로(滑走路)라고 하며, 작은 공항(空港)의 경우는 2천미터에서 3천미터 사이이고, 인천공항의 경우는 3천800미터나 된다. 또 고속도로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비상활주로(非常滑走路)도 있다.
활(滑)은 또 윤활유(潤滑油)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미끄럽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런데 어지럽다는 뜻일 경우는 '골(滑)로 발음한다. '골개(滑楷)는 매끄러운 표현으로 남의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재주꾼의 익살, 또는 그런 지혜이다. 본래 골개(滑楷)는 술을 담은 용기로 술부대 같은 것이었다. 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잘 따르는 것, 다변(多辯)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